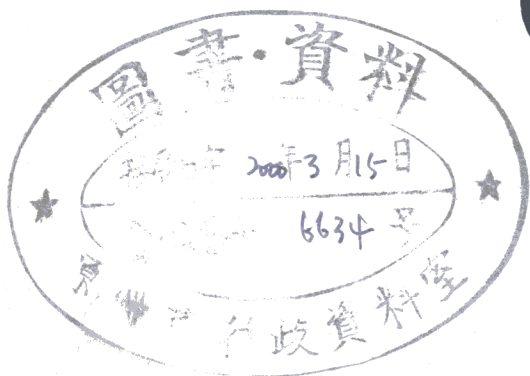


# 原州·原城鄉土誌

原州文化院

# 原州·原城鄉土誌



구입( )	기증( )
등록 제 6634	호
192000 . 3 . 15	

原州文化院

##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  
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뢰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듯  
한 협동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세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  
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  
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시 민 헌 장

치악(雉岳)은 골마다 의(義)로운 조상의 얼을 감추었고 사람은 가슴마다 순후(純厚)한 인정을 품어 대대로 살기좋은 낙토(樂土)를 이룬 원주시는 이제 영서(嶺西)의 관문(關門)이며 막각(莫強)한 우리 국군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명예로운 고장의 시민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보다 살기좋은 터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한결같이 서로 힘써 지켜 나갑니다.

1. 부지런하고 성실한 시민이 되어 생산(生産)하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2. 끊임없이 배우고 잘 가르쳐 훌륭한 일꾼을 길러 냅니다.
3. 이웃끼리 서로도와 정답고 밝은 거리이룩 합니다.
4. 공중시설(公衆施設)을 내 것처럼 아끼어 그 혜택을 다함께 누립니다.
5. 옛것을 보호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고장에 새 문화를 빛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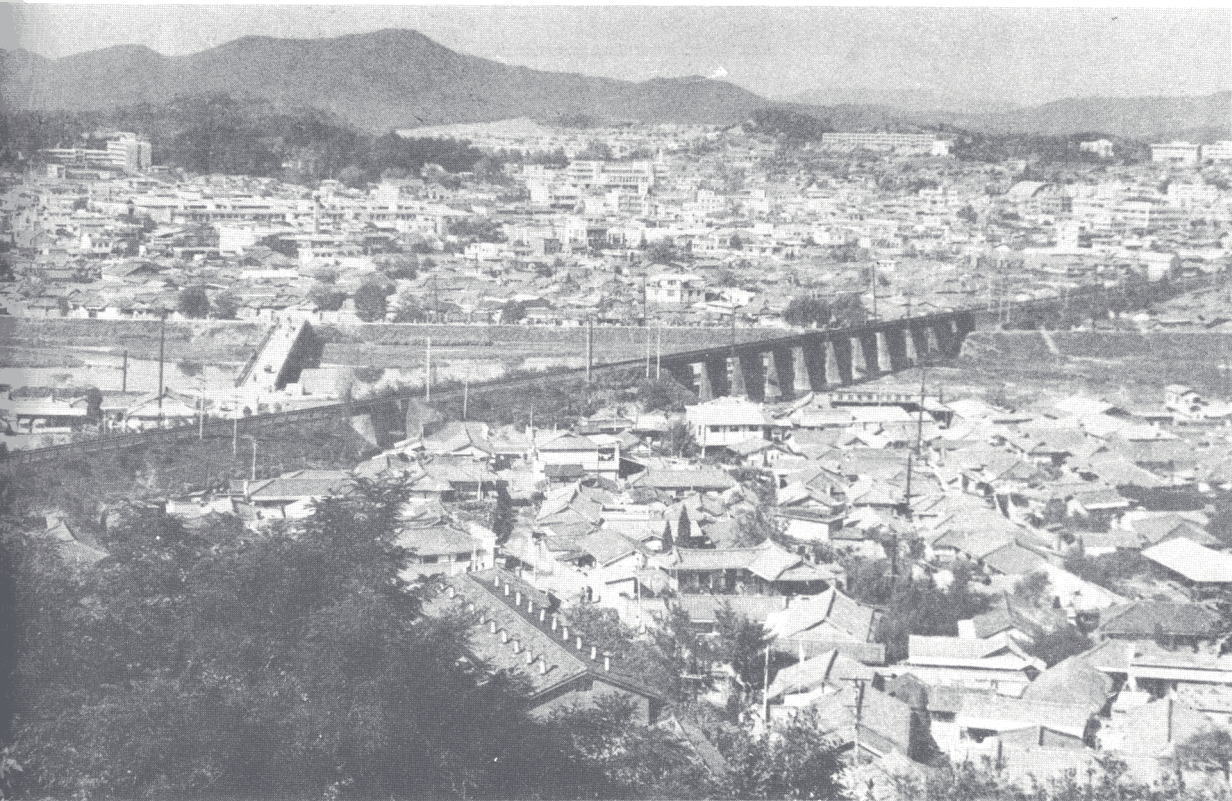
## 원주시민의 노래

빠르지 않게 힘있게

악: 임종택 작: 우용하

치악 - 산 아침해에 밝아 온 옛터  
봉천 - 내 맑은 물가 백학이 난다  
아름다 - 운 자 - 연에 꽃피운 경서  
이고 강 거 떠 돌아 다시 보아라  
(후렴) 아 영 서 에 자 - 랑 할 천 수 내 고 장  
희 망 에 찬 세 - 날 의 흥 - 이 - 들 린 다

2. 수난에 그역사를 슬프다말라 져터미 해치고서 다시 일어서  
불사조의 그 기백 아니 장하냐 이날에 이어받을 교훈 이어라
3. 단구역 그자취야 누가모르리 산나물 바꾸니건 고운아낙네  
지조도 드높았던 龜谷스승의 석경촌 돌아보며 웃고여미네
4. 어질고 슬기로운 이웃이모여 서로정 나누면서 웃고사는곳  
지나는 길손이여 손잡아보라 그옛날 복원땅에 자랑뛰든가



市街地全景

### 원성군의 노래



푸 른 산 맑 은 물 이 감 도 는 들 에



아 침 해 솟 아 오 니 찬 만 하 구 나



숲 속 에 새 가 울 고 기 름 진 이 땅



이 곳 이 고향 이 다 내 살 곳 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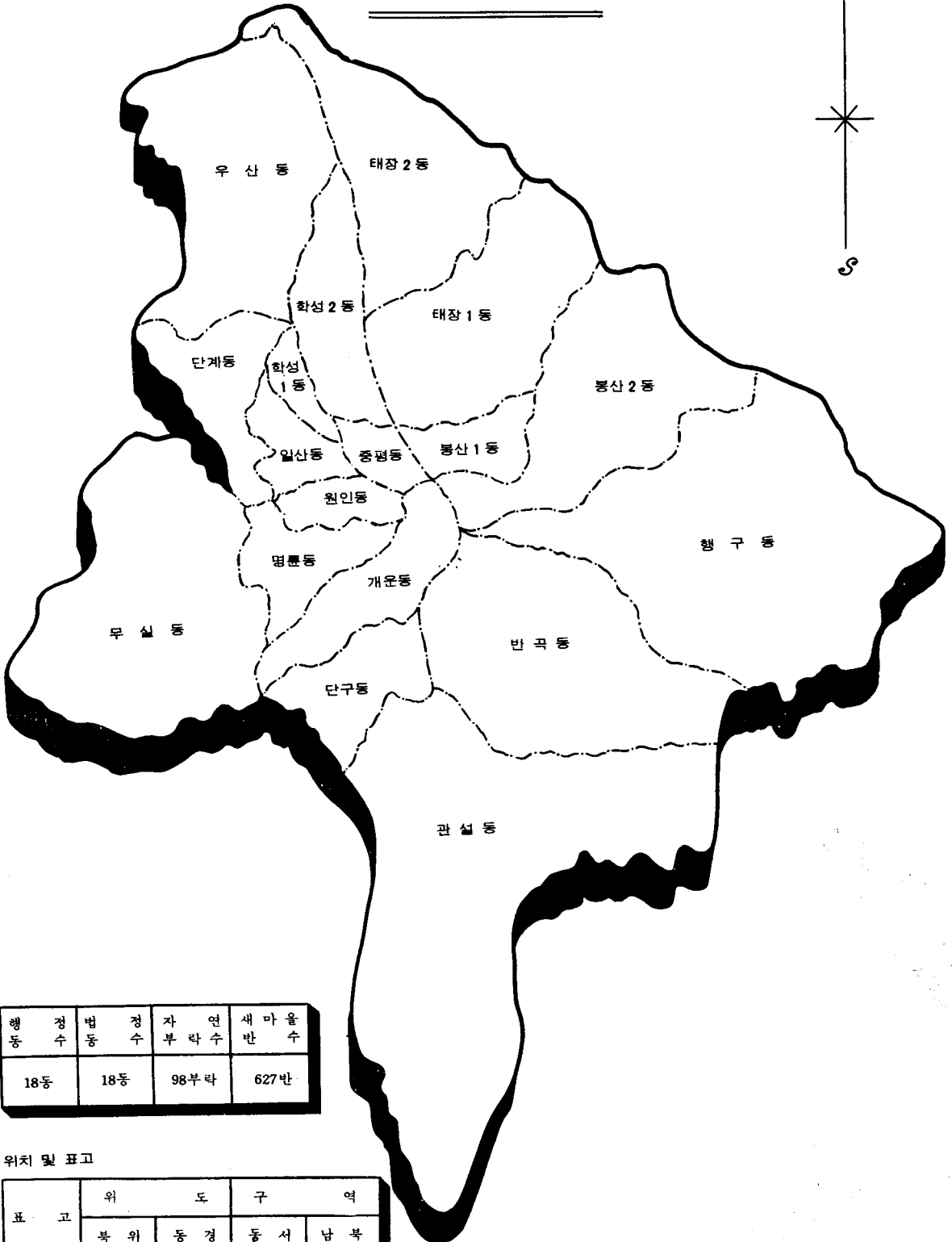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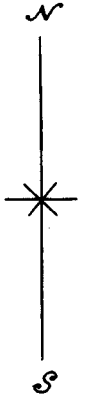


옛 부터 슬 기 롬 던 겨 레 - 이 거 는 우 - 리 원성군  
부 반 아 잘 살 리 라

## 郡 政 方 針

1. 自主性의 提高
2. 所 得 増 大
3. 地域의 綜合開發
4. 文化生活의 向上
5. 行政의 能率化
6. 勝共態勢의 強化

#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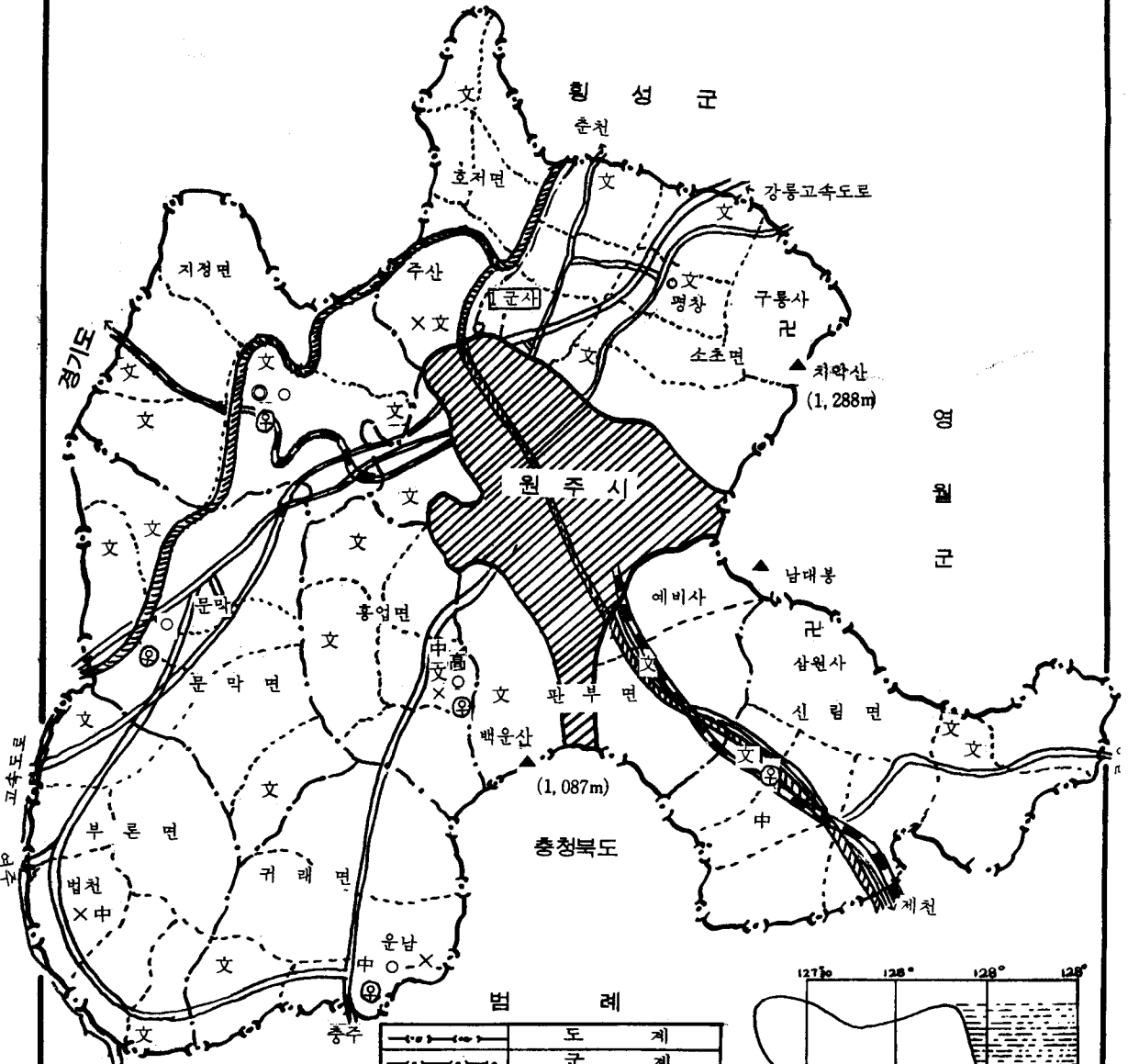


행정 동	정 수	법 동	정 수	자연 부락	새마을 반
18동	18동	98부락	627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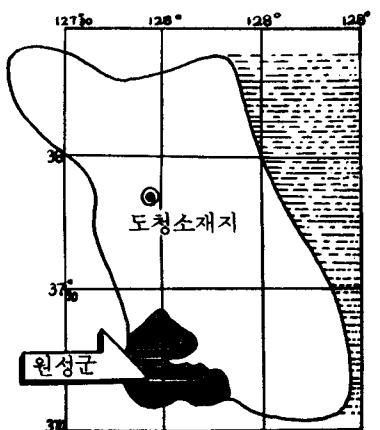
위치 및 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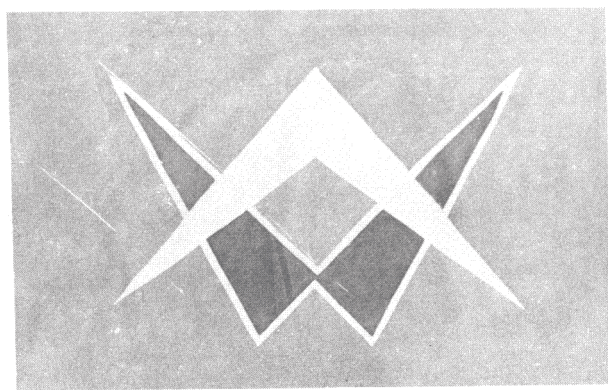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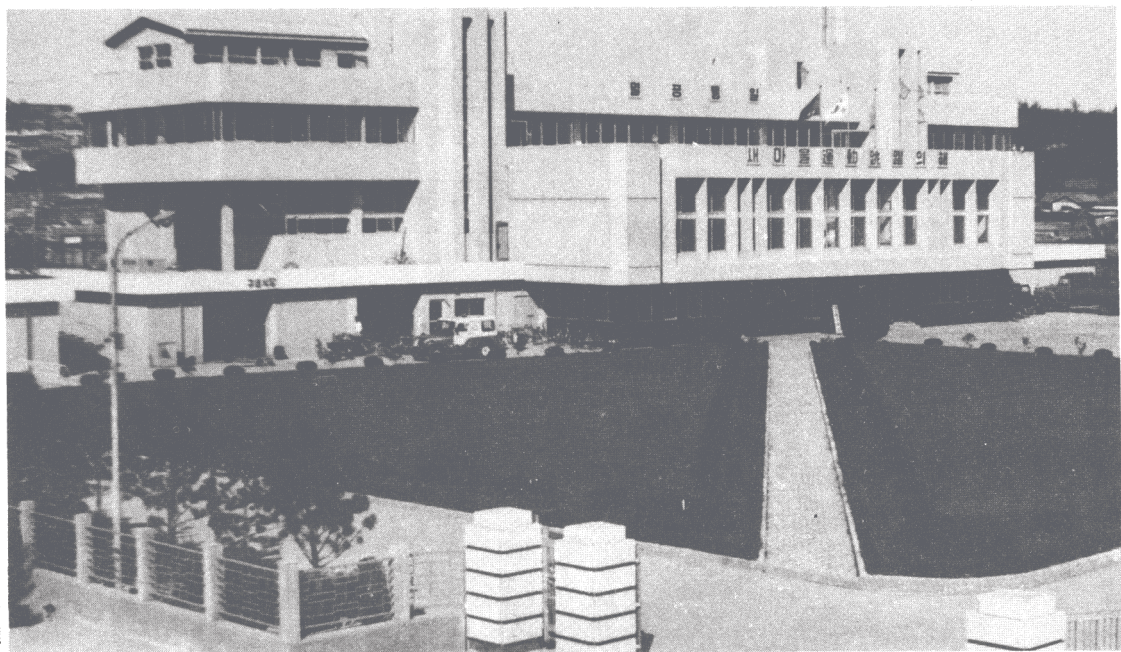
표 고	위 도		구 역	
	북 위	동 경	동 서	남 북
140m	37° 21'	127° 21'	12.3km	11.4km

# 원성군 관내약도



—●—●—●—●—	도	계
—●—●—●—●—	군	계
—●—●—●—●—	면	계
—●—●—●—●—	리	계
—●—●—●—●—	도	로
—●—●—●—●—	하	천
—●—●—●—●—	철	도
◎	군청소재지	
○	면소재지	
X	지	서
㉠	우	체
文 中 郡	학	교
군	사	찰
▲		산





市旗

## 市政指標

1. 率先하는 維新姿勢
2. 信賴받는 行政具顯
3. 새마을로 鄉土開發

—서로믿고 協助하여  
原州發展 이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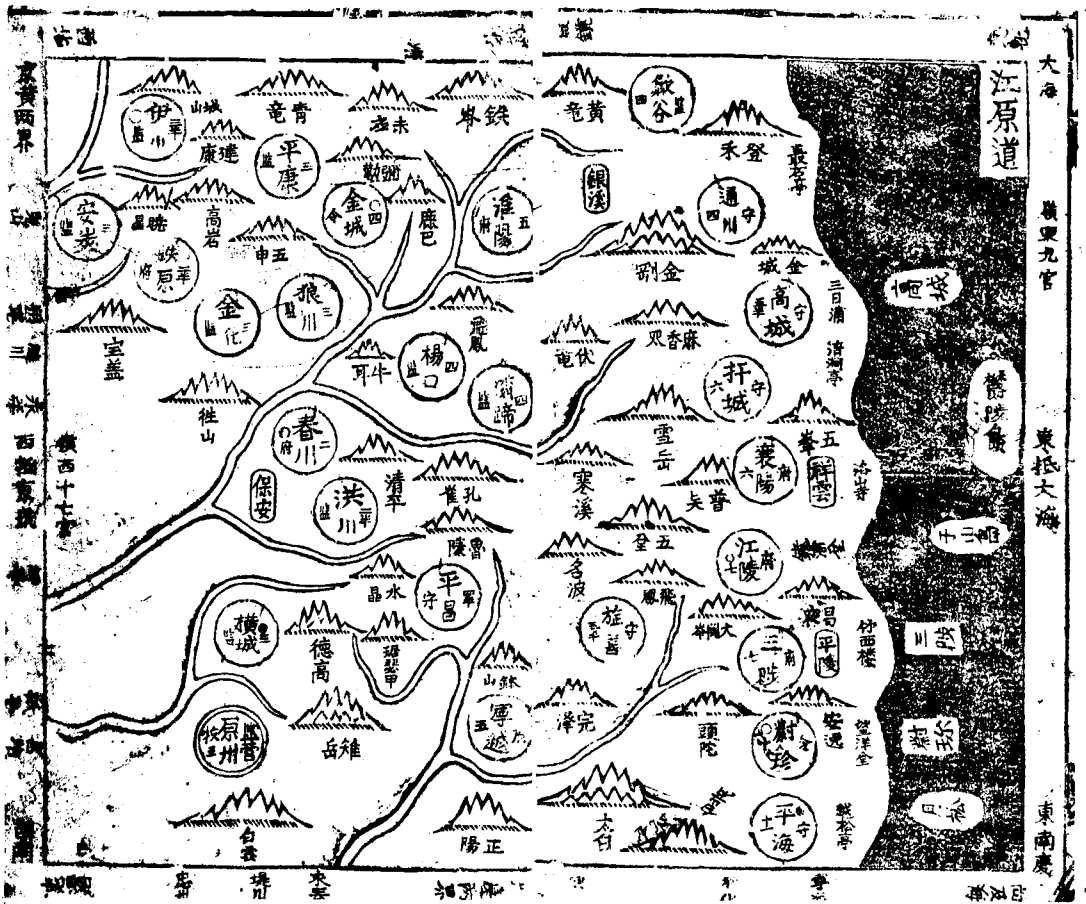
原城郡廳舍



郡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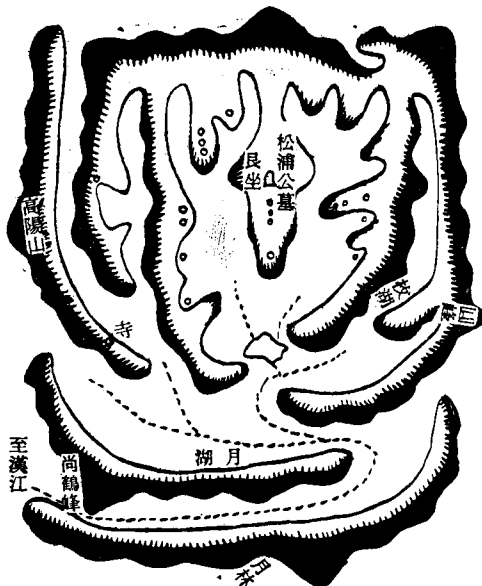
## 郡 政 方 針

1. 自主性의 提高
2. 所 得 增 大
3. 地域의 綜合開發
4. 文化生活의 向上
5. 行政의 能率化
6. 勝共態勢의 強化



原州監營圖

松浦公墓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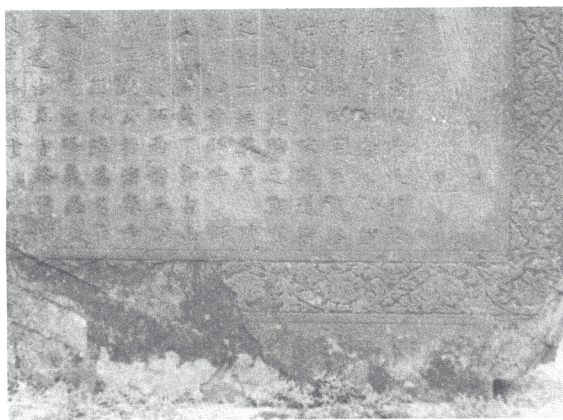


原州原郡正地面松里湖陵坐台窠

眞寫圖



① 지광국사 현포탑비(국보제59호) 法泉寺址  
원성군 부론면 법천리 소재



② 현포탑비의 자양(字樣) 法泉寺址

③ 법천사지 출토석조물



④ 현포탑비의 옆면 비룡조각(飛龍彫刻) 法泉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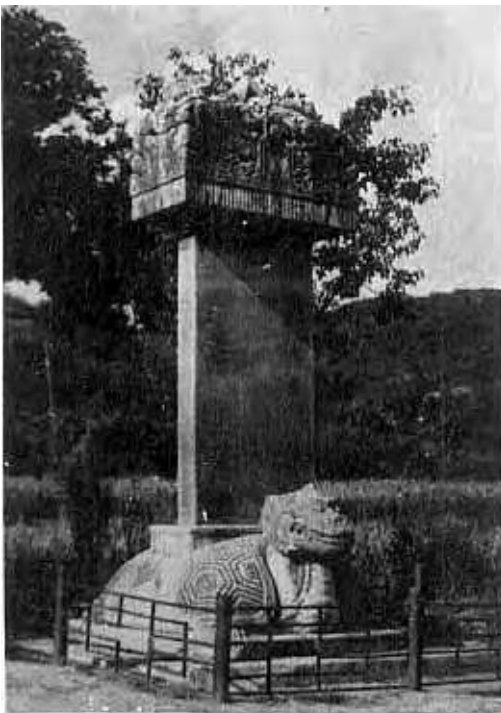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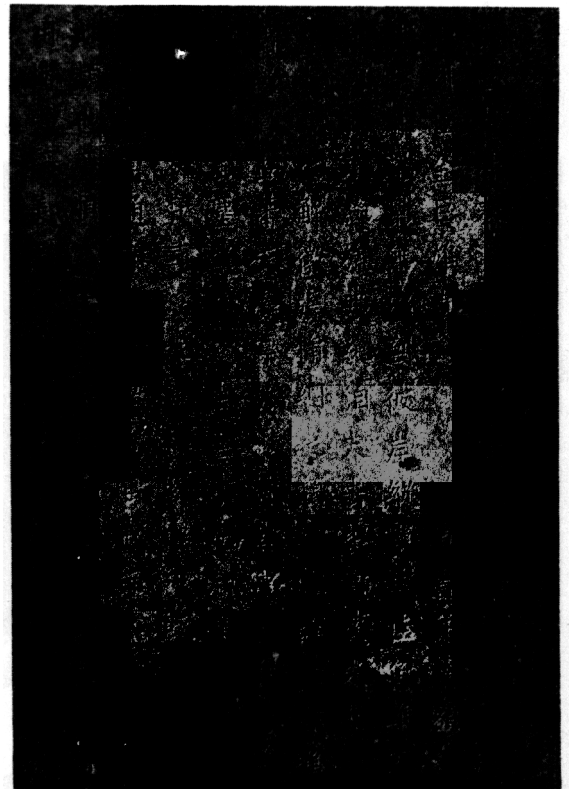
● 지광국사 현묘탑(법천사 유물)  
현재 서울 경복궁 정원에 있다.  
(국보제101호)



● 傳興法寺廉居和尚塔  
경복궁에 소장(국보 제104호)



● 원공국사 탑비(居頓寺址)  
부른면 정산리에 있다.  
(보물제78호)



● 원공국사탑비의 자양(字樣)



● 원공국사 승묘탑(보물제190호)  
서울 경복궁 정원에 소장



● 거둔사지 · 좌불대(座佛臺) 유적지  
부론면 정산리에 있다.



● 居頓寺址에 있는 三層石塔



● 眞空大師墓塔 附石棺  
서울 경복궁 정원에 있다.  
(보물 제365호)



● 흥법사 진공대사탑비의 비신(碑身)  
현재 서울 경복궁 건정전에 소장되어 있다.



● 興法寺址에 있는 三層石塔  
(보물제464호)



● 興法寺址에 있는 眞空大師塔碑의 龜趺 및 螭首  
(보물제463호) 地正面 安昌里에 있다.



● 眞空大師塔碑의 字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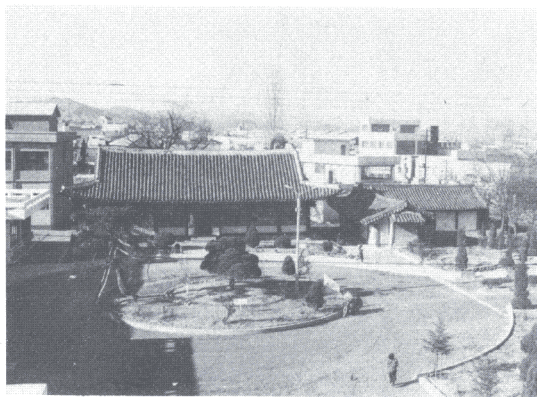
●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興法寺址에서 出土된  
龍紋의 瓦當



● 흥법사 자리에서 출토된 연화문의 와당(瓦當)



21 原州市 一山洞所在 江原監營門樓閣  
(原名은 宣威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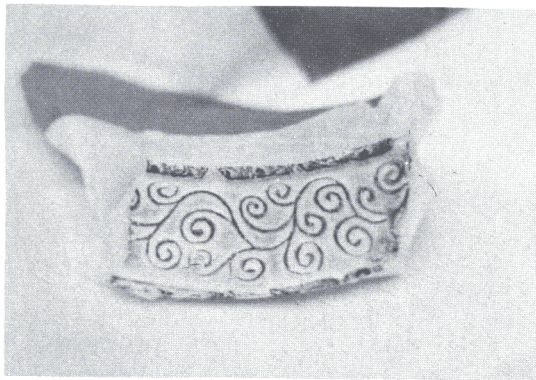
20 原州市 一山洞에 所在한 江原道監營當時의 客館  
宣化堂과 淸雲閣



原州市 一山洞 原城郡廳內 庭園에 所在하는  
新羅石塔과 座佛像



23 → 原城郡 所草面 鶴谷里 所在한 龜龍寺全景



19 흥법사지, 출토, 당초문의 瓦當



24 龜龍寺 大雄殿



● 구룡사의 보광루(普光樓) 내부 마루바닥에 우리나라에서 제일큰 명석이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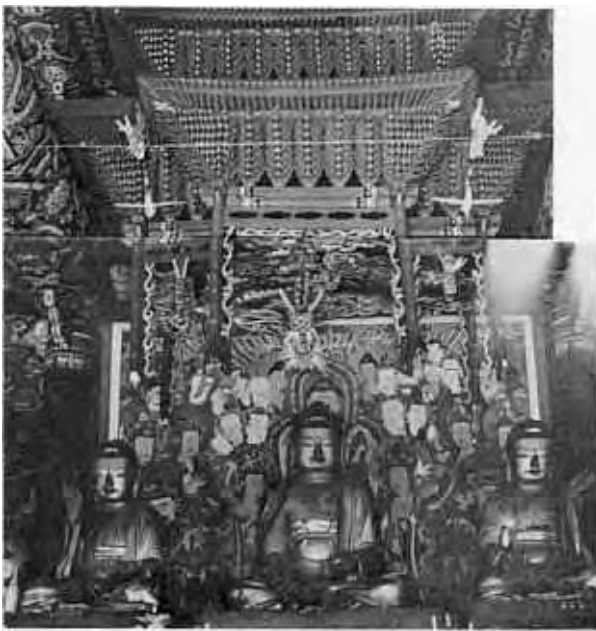
● 原州市 杏邱洞所在 國享寺全景



●→ 구룡사 입구에 있는 부도탑



● 龜龍寺僧契厘正節目(史蹟)



● 구룡사 대웅전안에 천정 닻집



● 구룡사 앞에 있는 구룡폭과 구룡소



❶ 原州市 杏邱洞 國享寺 境內에 있는 雉岳祭壇  
東岳祭를 올리던 곳이라고도 한다.



❷ 雉岳山 南大峰中턱에 있는 上院寺의 法堂과  
二基의 新羅石塔



❸ 上院寺蹟의 木碑



❹ 立石臺 壁臺에 놓여져있는 靑石塔



❺ 上院寺 大雄殿 壁畫  
평의 報恩의 由來를 벽화로 나타내고 있다.



❻ 原域郡 所草面 興陽里 黃谷洞所在 立石臺  
立石臺 下에 立石寺가 있다.



37 立石臺에서 동쪽50m 地點 岩壁에 彫刻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상



43 原州市 開運洞所在 元昊先生 旌忠之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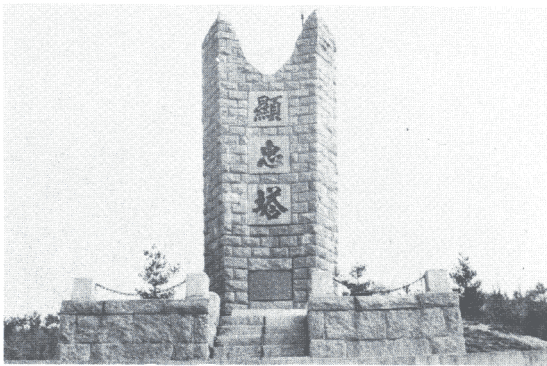
仁祖께서 내려준 잔대(은잔) (충효사에 소장)



41 仁祖가 내려준 선여지문이다(忠孝祠에 소장)



40→原城郡文幕面 礪溪里 所在「忠孝祠」黃子龍의 祠堂이다.



39 原州市 臺庄洞에 所在하며 나라를 지키다 간 전물 軍鏡526위를 봉안한 현충탑이다.



38 原城郡 文幕面 礪溪里 所在 은행나무 (천연기념물167호천)



● 原州市 臺壓二洞에 所在한  
王女福蘭公主의 胎室碑



● 太宗이 내려준 墓碑石



● 原州市 杏邱洞 石遷村 耘谷墓所앞에 있는  
史蹟碑



● 原城郡 所草面 長楊里 所在  
原州地區 戰斗戰跡碑



● 原州市 杏邱洞 石遷村 所在 石遷寺 本堂  
原州元氏 耘谷派의 祭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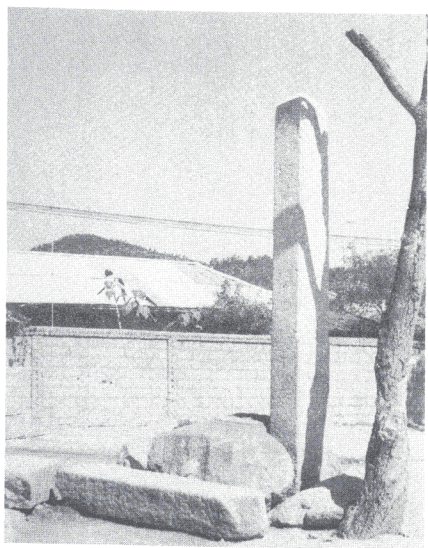
● 原州市 鳳山洞 天王寺址에서 出土된  
舍利容器(국립박물관 소장)



65 原州市 明倫洞所在·鄉校의 明倫堂이다.  
(옆으로 東西濟가 있다.)



68 法泉寺址에 있는 撞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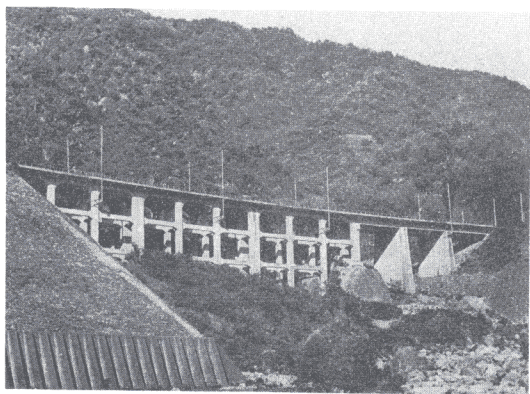
69 原州市鳳山2洞 毗摩羅寺址의  
撞竿支柱(1柱는 부러져 있다)



67 原城郡 興業面 梅乏里 貯水池  
북관 거북섬에 있는 보살입상



66 原城郡·地正面 安昌리에 있는 金梯男史蹟碑



78 原城郡 板富面 金垆리에 있는 대평다리



63 神仙庵에 있는 銅鍾  
(重量 2 千斤)



60 原州市 鶴城洞 文化劇場 앞路中에  
세워져 있는 義兵將 李殷瓚公追慕碑



62 原州市 鳳山 2 洞 神仙庵入口에 있는  
菩薩立像



61 原城郡富論面蓀谷里 林將軍의  
生家터에 세워진 追慕碑



64 神仙庵의 미륵상



65 原州市丹溪洞 法雄寺의 銅鍾



66 法雄寺에 소장되어 있는 傳天王寺址, 出土  
塔身四方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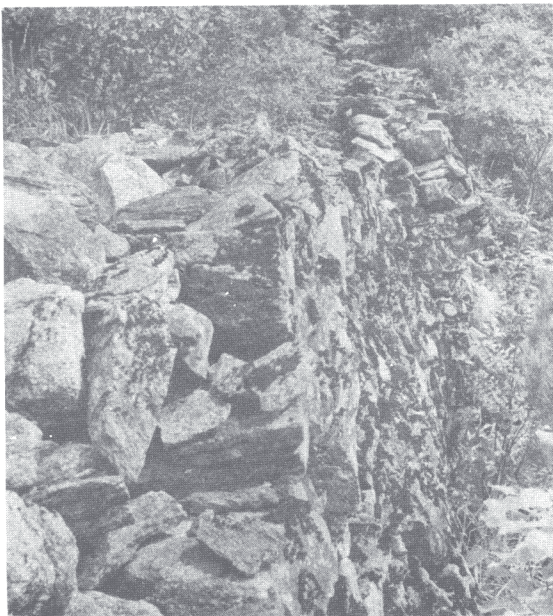
67 原州市 鳳山洞 鶴鳳亭에서 出土된 菩薩立像



69 原川市 杏邱洞 雉岳山中腹에 있는 普文寺址에서 出土된 靑石塔이다. 옛 寺址에다 새로 이룩한 普文寺 前庭에 있다.



70 原州市 開運洞에 있는 獨개비碑 (다른 곳에서는 볼수도 들을수도 없는 碑로서 碑文은 金公之碑다)



71 原城郡 板富面 金垆里에 있는 鵠原山城의 石築 (둘레 4 km 높이 2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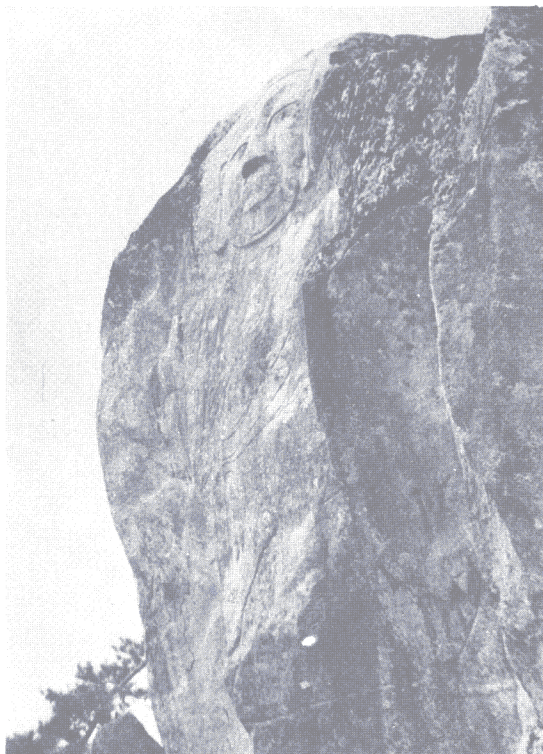
原州市内 中心宣化堂 뒤에있는 槐木(이상하게 생겨나는 그것)

75 原城郡 貴來面 周浦里 미륵산에  
있는 미륵상(4 km前方에서도 보인다)



76 原州市丹邱洞에 있는 古屋  
(옛날 洪判書집)

77 傳天王寺址出土 菩薩立像  
原州市 鳳山洞 現天王寺所在



78 原州市 鳳山洞二區 새말에 있는  
석불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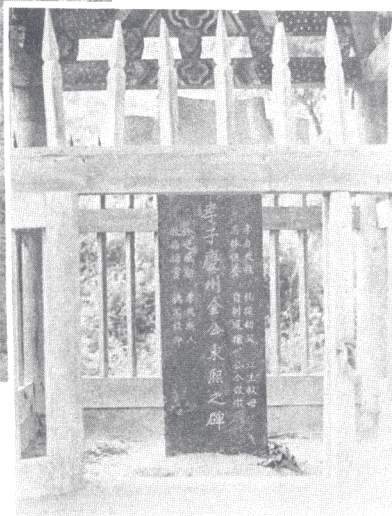
79 原城郡 文幕面に 있는 派越記念碑



78 原城郡 貴來面 黄山寺의 三重石塔



80 原城郡 所草面に 있는 孝子閣



● 原城郡 地正面  
安昌리에 있는  
延安金氏의 祠宇



● 原城郡 文幕面  
飛頭里 龍바우골  
에서 出土된  
龜趺와 螭首

● 原州市 一山洞  
감리교회 前庭에  
있는 塔身의  
四天王像





● 원성군 문막면  
동화리에 있는  
「노정승묘」의 석물



● 原城郡 地正面  
良峴리에 있는  
趙巖墓의 石物



● 原城郡 板富面 金垞里  
「天然동굴안에 석종」

⑧ 雉岳山の  
主峰인 飛爐峰  
에 石塔



⑨ 비로봉에 새로  
쌓아올린 돌탑



⑩ 原州元氏의 烈位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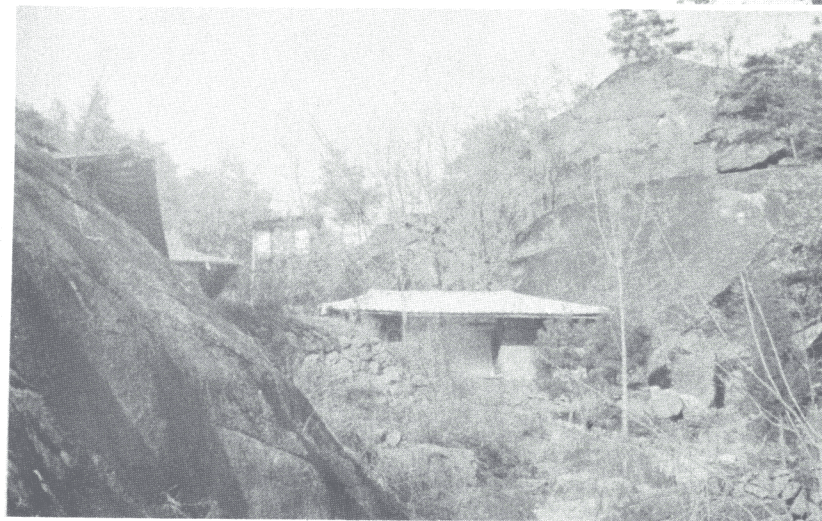


90 人間文化財 第10號 金奉龍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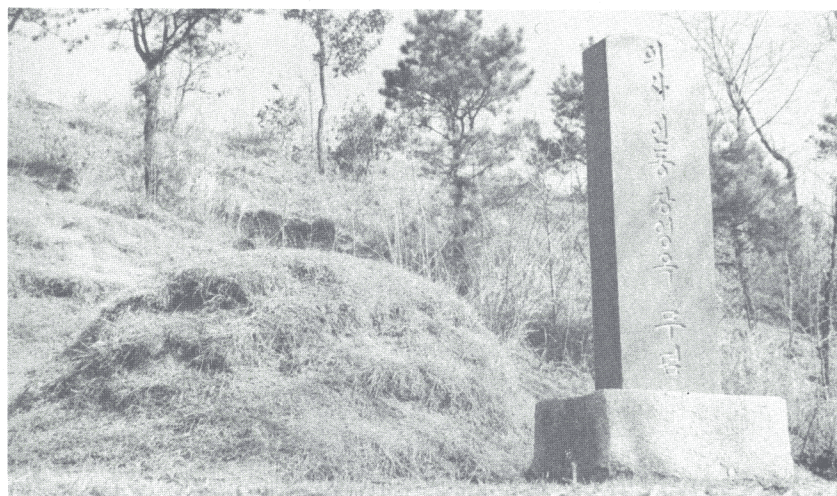


91 라전철기의 작업과정  
(人間文化財 제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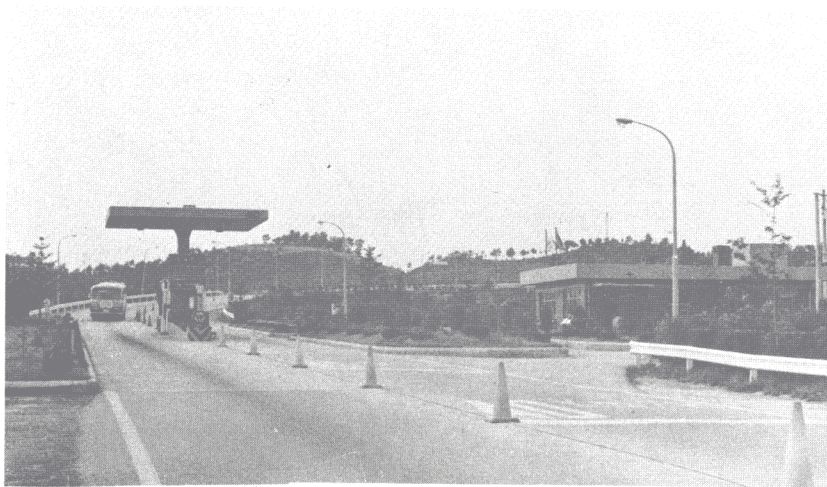
95 改造된 黄山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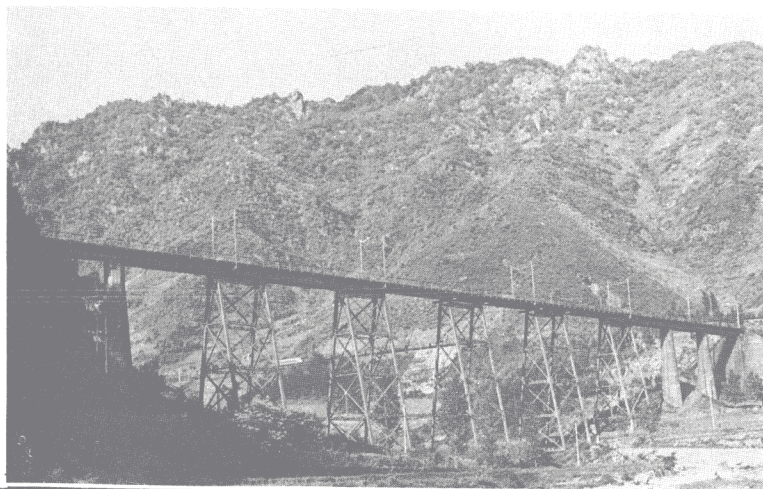
94 所草面 橋項里  
路邊에 있는 佛頭



93 의사 장영옥의 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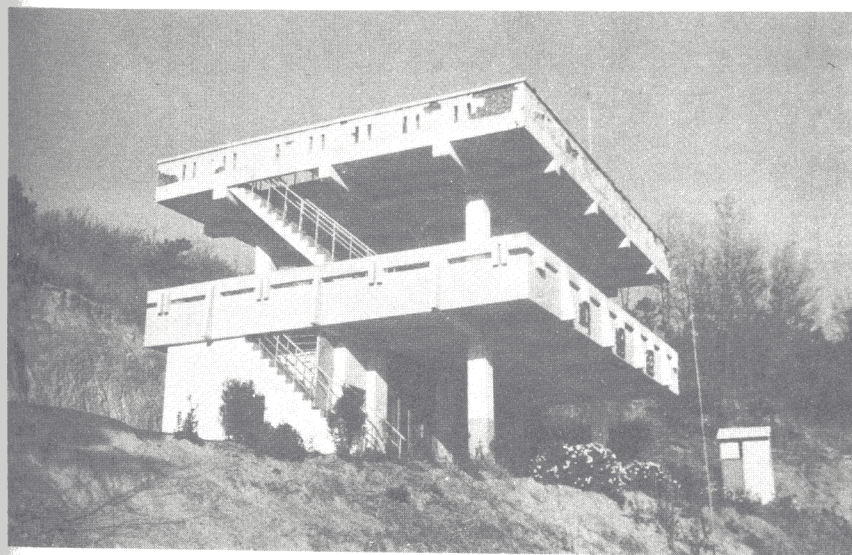
102 高速道路原州 톨게이트



103 金垈里에 百尺鐵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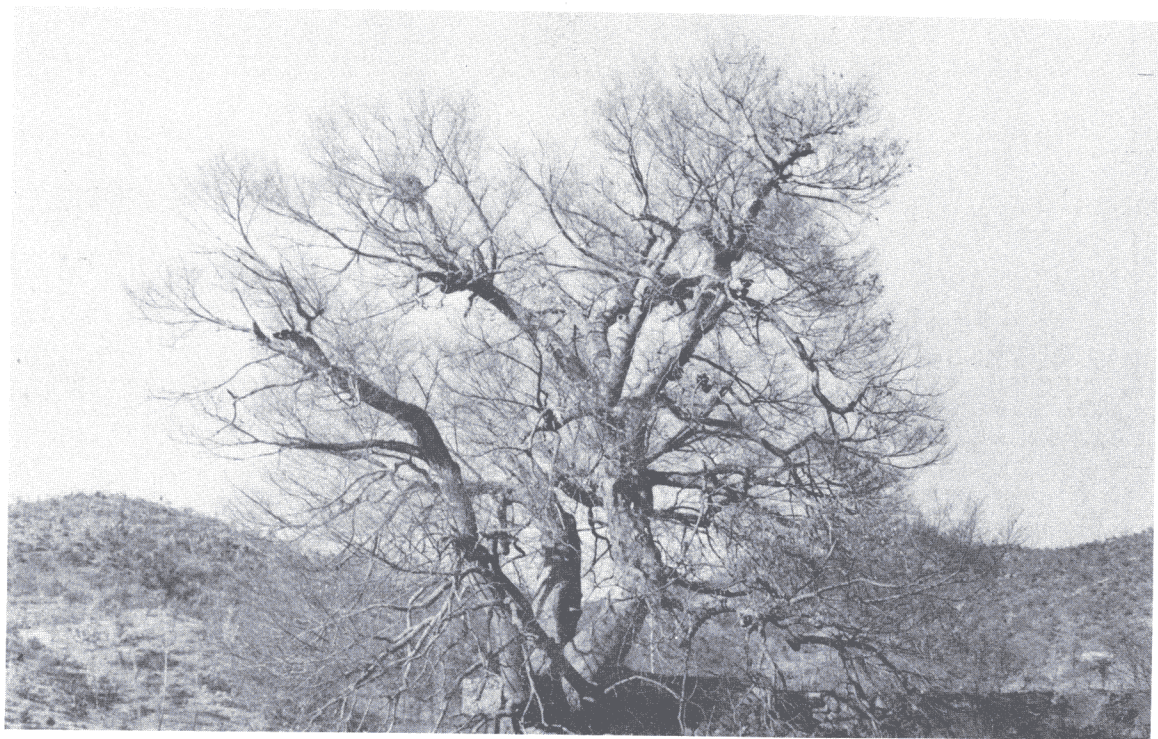
99 黃山寺址에서  
出土된 銅境  
(道에 보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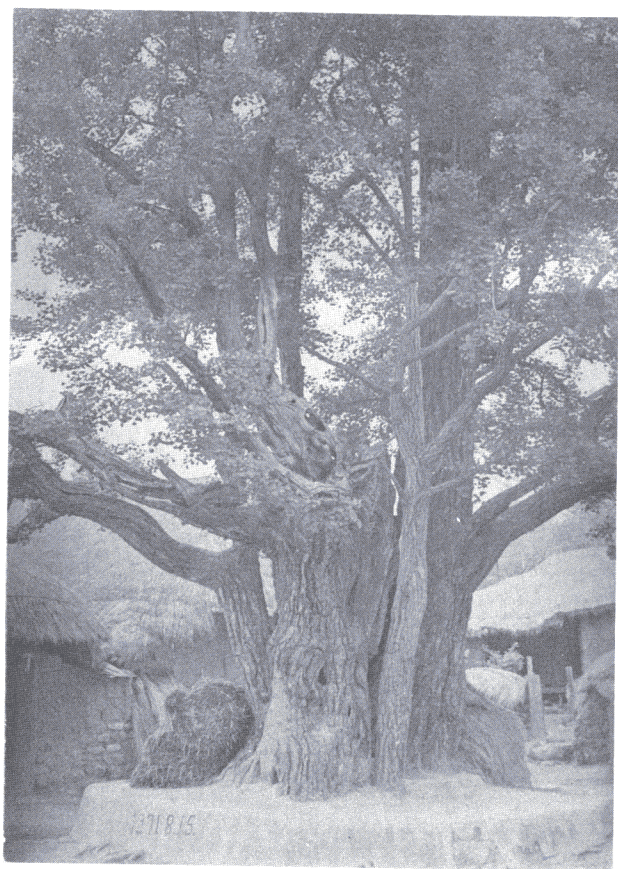
105 現代式으로  
改造된 鶴鳳亭



106 雉岳山 城南골에  
있는 瀑布



108 巨頓寺址에  
있는 槐木



101 靈山에 있는 銀杏전나무

## 序 文

한 民族의 歷史를 總網羅한 것이 國史라 한다면 國史의 根幹은 鄉土史가 될 것이다. 國家를 形成하는 單位가 地域社會일진대 國史의 形成은 鄉土史의 完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鄉土史의 正確하고도 本質적인 追求는 國史形成의 기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歷史 發掘이라는 意義를 갖게도 되는 것이다. 鄉土先民이 끼친 文化史的 地理史的 또는 鬭爭史 等 그들이 남긴 遺蹟에서 燦爛했던 文化創造의 산 자취를 하나 하나 찾아 原州地方의 魂과 傳統을 기리 기리 繼承함과 아울러 教育의 資料로 하고자 한다. 二千年의 悠久한 北原史의 實證이나 文獻은 姑捨하고 遺蹟의 廢墟는 本誌 編纂의 隘路 莫甚하였을 뿐 아니라 實로 痛恨을 禁치 못하였다. 그러나 殘存한 文化財와 傳統的인 風俗 및 遺蹟을 찾아 하나 하나 考證도 받아가며 文獻을 照合하여 收錄하였고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舊邑誌 및 江原道誌와 江原總覽 藝城春秋 및 堤川郡誌 등에서 발췌 수록하였으며 其他事蹟과 碑文을 收錄하였다.

原州는 옛부터 軍都로서 兵馬의 高장이라고 까지 일컬어왔고 地域的으로도 많은 受難을 겪어왔기 때문에 資料蒐集에 어려운 點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러나 黃柱益 文化院長의 끈질긴 努力으로 長長 7년에 걸쳐 7千枚의 原稿로서 本誌가 出刊되었음을 밝혀둔다. 勿論 資料蒐集뿐만 아니라 마련된 豫算도 없이 집념만으로 始作된 編纂事業이어서 完全하리라고는 바랄 수 없으며 그러나 이제까지 “내 고장”의 歷史라고 文獻으로 된 것이 없었음을 부끄럽게만 여겨오던 우리로서 鄉土史의 언저리를 이룩했다는 것 만으로 多幸하게 여기며 未洽한 點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아울러 말해두는 바이다. 綿綿히 이어온 우리의 2千年史를 돌이켜 볼때, 高句麗와 新羅의 交界地로 된 以後 이 고장은 戰禍를 免치 못하였고 軍事要衝地로서 끊임없는 戰亂으로 因해 文化遺蹟은 滅失되어 文都로서보다 武都 또는 軍都로서 成長하였고 지금도 野戰軍司令部의 雄據地가 되고 있으니 이는 護國의 靈地요 五岳의 名山인 雉岳山을 背景으로 하고 交通과 地理的 條件이 具備된 땅이라고 하겠다. 軍事的 要地였기 때문에 祖上들이 이룩한 高貴한 文化遺産이 滅失되고 또 倭政時에 日本人들에 依해서 盜掘 또는 擯出되는 等으로 傳統的인 우리의 佛教美術과 高麗 李朝時代의 文化的 價値있는 文化財가 거의 없어지고 文獻 또한 없기에 編纂上 마음 아픔이 말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原州는 北原京이란 獨立的인 位置에도 있었고 江原道の 監營으로도 있었다가 다시 忠淸道로 예속되기도 했다가 이제 江原道에 屬하게 되었으니 그 동안의 史的인 文獻이 原州에 있기 前에야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었으리요, 이러한 아픔을 달래며 서울의 主要 圖書館과 學

者님들의 도움으로 不足한 點을 補完하면서 東奔西走하여 變遷된 地名과 位置를 確認도 하고 文化財의 確認과 未發掘의 文化財를 찾아내는 등으로 後孫들에게 길이 남겨줄 鄉土史 集大成에 渾身の 힘을 다한 黃院長의 努力은 크다고 하겠다.

本誌 資料蒐集에 着手한지 數年이 지난 이제 그 結實을 보게 되었다. 그간 物心兩面으로 協助해 주신 鄉民 有志 여러분과 執筆 및 資料蒐集을 支援해 주신 분들에게 感謝하며 비록 不足하고 未洽한 點이 한 두 가지가 아니나 새로운 體制의 鄉土誌가 되었으니 鄉土史 研究의 資料가 되고 鄉土人의 唯一한 文獻으로써 鄉土發展의 기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보람이 되겠다.

1975年 12月 日

原州文化院 鄉土誌編輯 委員會

元 寅 植

## 序 文

民族이 있는 곳에 歷史가 있듯 社會形成에도 그 過程의 記錄이 重要함은 自他가 共認하면서도 當代人들은 誠意와 能力이 不足하였음인지 鄉土史的 傳達이 未及함을 느끼게 한다. 鄉土란 내가 태어난 고향이요, 내 뼈가 굶어진 곳이다. 祖上의 열이 담긴 곳이요, 내 精神의 安住處가 또한 내 故鄉이다. 여기에는 祖上의 精神的 物質的 遺産이 있고 우리의 心琴을 울리는 太初의 이야기가 있고, 哀歡과 喜悲로 물든 生活史가 있고 情緒가 있고, 生의 指針이 되는 知慧가 있다. 때문에 이 고향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내 고향을 아끼고 스스로 가꾸고 어루만져야 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사람들은 이것을 忘却하고 疏外속에서 現實을 살고 있다. 이 고향 原州가 北原이라는 鄉名以前부터 歷史的 都邑으로 存在하였을 뿐 아니라 世居氏族의 本鄉으로 그 紀元을 多彩롭게 하였음도 周知의 事實이다. 한 人間의 人格形成은 그가 태어난 곳의 氣候 生活 風土같은 地理的 條件과 時間的인 經過에 따른 歷史的인 狀況속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때 내 鄉土를 外面하고 서야 어찌 삶을 이야기하며 社會를 이야기하고 國家를 이야기할 것인가?

視野의 擴大는 反省의 深化를 必要로 한다. 내 고향의 歷史와 現實은 나에 依해서 發展하고 나는 내 고향의 歷史와 現實에 依하여 成長된다. 最近 이 나라의 歷史的 方向은 主體性的 確立으로 차근차근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내 고향의 豐饒가 곧 나라의 富強이요 또한 나라의 基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時代的 要請이 切實함에도 고향의 조그마한 文化事業 마저도 放棄되어 왔던 것이 事實이다. 여기 疎外되기 쉬운 社會的 條件 속에서도 내 고향의 歷史的 足蹟을 整理해 보겠다고 數年前부터 끈질긴 執念과 學究的 情熱로 애써온 黃柱益 文化院長의 勞苦는 끝내 「原州·原城 鄉土誌」란 龍大한 冊子를 出刊케 한 것이다. 그간 短片的인 史料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體系를 세워 整理된 것은 別無인데다가 이에 뜻을 두어 着手한 일이 없이 空白期를免치 못했던 것이다. 더우기 倭政間에는 우리 民族史 抹殺政策의 一貫으로 有形無形의 文化財와 歷史的 記錄등이 없어진데 이어 6.25動亂으로 根據조차 찾아볼 수 없을 程度로 燒滅된 것이니 材料蒐集의 勞苦야 말로 무어라 表現하기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이 鄉土誌의 編輯된 內容에 있어서도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學術, 產業, 風習, 人物, 年中行事에 이르기 까지 그렇게도 자상하고 幅이 넓게 다루어 졌다는 것은 實로 큰 作業이었다고 하겠다. 참으로 黃院長의 끈질긴 努力을 敬賀해 마지 않는 바이다. 이 鄉土誌

出現의 意義는 고장의 內的 意味도 우선 크지만 歷史編纂의 一翼이 된다는 데에도 뜻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作業은 原州・原城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原州, 原城 鄉土誌」發刊을 계기로 우리는 내고장을 아끼고 가꾸고 그리고 다듬을줄 알아야 하겠고 또한 이 고장의 住民임을 自負하는 矜持속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부지런하여 總和團結로 人心 좋은 原州 原城이란 印象을 浮刻시키도록 더욱 努力해야 되겠다. 끝으로 이 原州・原城의 鄉土誌를 發刊하기 爲하여 千辛萬苦를 다한 文化院長과 이에 관계한 여러분들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1975年 12月 日

共和黨第2地區黨 委員長

國會議員 金 龍 鎬

## 激 勵 文

「郷土誌 發刊에 즈음하여」

이고장 原州가 北原이라는 鄉名以前부터 歴史的 都邑으로 存在하였을 뿐 아니라 世居氏族의 本鄉으로 그 紀元을 多彩롭게 하였음은 周知의 史實이다. 그간 短片的인 史料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되 體系를 세워 整理된 것은 別로 없었고 따라서 이에 뜻을 두어 郷土誌發刊을 着手한 일도 없이 空白期를 免치 못했다. 더우기 倭政間에는 우리의 民族史抹殺政策의 一貫으로 有形無形인 文化財와 記錄等이 없어 졌으므로 이의 蒐集은 더욱 어려웠으리라 생각도 된다. 原州 地方은 全國有數한 市 郡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다할 郷土誌가 없었음을 甚히 허전하게 여겨왔다. 뜻은 있었으나 이와 같은 發刊事業을 담당할 有志가 없는가 하면 또한 사람은 있으되 物質的인 뒷받침이 없어 이 事業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한다. 多幸이 이 方面의 先驅者가 있어 먼저 旗幟를 들고 나섰으니 그가 바로 黃柱益 原州文化院長이다. 10餘年前부터 郷土誌 發刊의 뜻을 품고 不斷한 努力끝에 蒐集 研究 整理를 보아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되었으니 이 고장의 快事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黃院長이 겪은 勞苦야말로 무어라 表現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愛鄉에의 一念은 헛되지 않아 오늘의 成果로서 나타난 것이다. 千萬多幸한 일이다. 編輯된 內容에 있어서도 政治, 經濟, 文化, 學術, 産業, 風習, 人物, 年中行事에 이르기까지 그렇게도 자상하고 幅이 넓었음은 일찌기 볼 수 없었던 大作業이 었다고 하겠다. 本來 이 事業은 行政的인 支援으로 完成해야 할 性質의 것이었으나 여러가지 避치 못할 事情으로 미루워 오던 것을 黃院長의 熱誠으로 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높이 評價한다. 後日 이 郷土誌가 永久保存됨에 따라 氏의 勞苦는 報償될 것으로 안다. 이로서 宿願의 文化的 郷土事業 하나가 成就된 셈이니 누가 뭐라든 이 책은 우리고장 後代에 까지 傳할 수 있는 가장 값진 文化的 遺産이 될 것이다. 原州市는 嶺西의 關門이요 軍事的으로서도 重要性은 累言을 必要치 않는다 할지라도 現在 産業과 教育文化都市로서 面貌를 一新하고 있으니 이 고장을 찾거나 他處에서 알고져 하는 이에게 이 책은 더욱 빛나는 價値를 지닐 것이다.

乙卯 十二月 日

原州市長 鄭箕勳

## 激 勵 文

郷土誌發刊에 際하에 -

하나의 民族이 있으면 반듯이 거기에는 歷史가 있듯이 어느 郷土를 莫論하고 그 地方特有의 郷土史가 있겠으나 太白의 줄기를 이어받은 우리 고장은 半萬年の 歷史를 通하여 하나도 빼놓지 않고 民族의 얼과 슬기를 구석 구석에 담아 놓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海拔 1,288m의 우뚝 솟은 雉岳의 精氣를 이어 받은 본 고장은 예로부터 山水가 좋아 有名人이 많이 찾는 곳으로 國寶 第59號인 玄妙塔碑와 寶物 第78號인 勝妙塔碑 寶物 第464號인 興法寺社 등이 있으며 雉岳山을 中心으로 新羅時代以後에 세워진 무려 100餘個의 크고 작은 寺刹과 鵠原山城을 비롯한 3個所의 山城이 이를 實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雉岳山 一帶의 自然景觀은 그 風致가 極히 아름다워 1973年度에는 道立公園으로 指定되어 觀光地로서 面貌를 가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는 祖上의 얼이 듬뿍 담겨져 있는 文化財와 由緒깊은 歷史를 通하여 우리 民族의 優秀性和 永久不滅의 偉大한 創造力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새로운 民族文化를 創造하고 綿綿히 이어온 傳統을 이어 받아 文化財를 保存하고 開發하여 透徹한 郷土愛를 기르는데 決코 疎忽히 하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朴大統領閣下께서는 文化遺産은 우리 民族의 氣魄과 精神의 結晶體이기에 어떤 混亂과 苦難속에서도 이를 기리 保存하고 더욱 빛내어 傳承하는 것은 國民된 當然한 義務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에게도 土郷의 印記가 있어 先祖의 얼이 빛나는 이 偉大한 遺産앞에서 敬虔하고 嚴肅한 마음으로 그 保護에 임해야 될 줄 믿으며 不滅의 精神을 배워 익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後孫들에게 이 보람있고 알찬 土郷의 얼을 傳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原州文化院長이신 黃柱益先生께서 土郷의 얼을 기리 되새기고 後孫들에게 기리 기리 물려줄 수 있는 郷土誌를 創刊하게 되었음에 10萬郡民과 더불어 衷心으로 慶賀하여 마지 않으며 본고장 唯一의 本誌가 地域發展에 산 根據가 되고 民族文化發展에 根幹이 될 것을 確信하며 本誌 編纂에 있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管内 구석 구석을 踏査하여 資料를 蒐集하고 執筆하는 등 많은 努力을 아끼지 않은 黃柱益院長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1975年 12月 日

原城郡守 崔 桂 明

## 激 勵 文

우리 原州는 嶺西의 由緒깊은 古都로서 일찌기는 北原京이라 하여 新羅五京의 하나였고 다시 李朝 五百年동안에는 江原監營(現在 江原道廳)의 所在地로 名實共に 本道 首府의 役割을 擔當하였던 歷史와 傳統이 서린 故鄕이다.

멀리 上古 三國時代에 高句麗의 平原郡 命名으로 始發된 우리 原州는 그 뒤 鄉土文化의 盛衰와 浮沈에 따라 고을 이름이 여러차례 바뀌기도 하였고 連綿無雙한 歷史와 더불어 數많은 偉人傑士들이 나왔으니 저 哈丹賊을 勇敢하게 무찌른 元冲 甲公 壬辰亂에 倭敵과 싸워 鄉土를 死守 殉節한 金悌甲牧使 그리고 舊韓末 救國의 蠟燭을 들고 義兵을 거느리고 活躍했던 閔肯鎬 李殷瓚같은 분들이 續出하여 목숨을 걸고 鄉土와 國家를 위해 大義를 떨친 빛나는 榮譽를 지닌 자랑스러운 義의 故鄕이 또한 우리 原州인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現在는 決코 偶然한 現在가 아니오 지난날 先人들의 行績을 이어 받아서 그것을 土臺로 發展된 것이니 過去는 現在의 根源이오 現在는 過去의 集積이며 未來는 現在를 基盤으로 그 위에 建設 展開되는 것이다. 歷史는 살아있는 것이다. 鄉土나 國家나 그 興亡盛衰가 그 國民精神과 鄉土精神이 살았을 때 그 歷史는 興하였고 그것이 衰하였을 때 그 歷史는 또한 衰運을 免치 못하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故鄕에는 많은 名勝古蹟과 史話傳說이 있고 鄉土를 빛낸 無數한 人物行蹟들이 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우리 故鄕의 鄉土史의 얼과 文化遺産을 發見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發掘 整理하여 現在 生活와의 關連속에서 바르게 繼承한다는 것은 自我發見과 鄉土文化 創造를 위하여 그리고 現在를 보다 充實하고 發展하는 契機로 삼기 위해서 必要不可缺한 일이라 하겠다.

近來 우리 故鄕은 一軍司를 中心으로 新興 軍事都市로서 刮目할 發展을 示顯했고 더욱이 最近에는 嶺東高速道路의 開通으로 우리 原州의 地政學的 重要性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새마을運動으로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하여 自助, 協同, 自立에의 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그 持續的인 成果 擧揚을 위해서도 우리 鄉土地域社會를 理解 認識하고 鄉土愛에 불타는 精神的인 支柱가 構築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뜻에서도 鄉土誌 編纂은 이 故鄕 識者들간의 繼續된 關心事요 地域社會의 一大宿願이었던 바 이번에 原州文化院長 黃柱盆先生이 崇高한 愛鄉精神과 피나는 努力으로 萬難을 무릅쓰고 그 編纂事業에 着手하여 그간 散失되었던 文獻을 蒐集

하고 묻혔던 遺蹟을 踏査 發掘 整理하여 그 勞苦의 結晶으로 及其也 有終의 美를  
거두어 이와 같이 훌륭한 우리 原州・原城의 鄉土誌가 刊行되게 되었다는 것은 그  
意義가 甚大할 뿐 아니라 將次 鄉土教育을 위해서도 貴重한 資料가 되어 鄉土愛 啓  
發에 寄與하는 바 자못 많은 것을 굳게 믿어 衷心으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모쪼록 이 鄉土誌가 우리 原州地方의 文化發展의 산 기틀이 되도록 活用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이고장 住民의 愛鄉心을 더욱 鼓吹하여 살기 좋은 내고장 建設  
의 새 役軍과 人物들이 繼續 많이 輩出되기를 期待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本誌 編刊을 위해 協力 手苦하신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感謝를 드린다.

1975年 12月 日

原州市 教育長

安

德

欽